고려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독서 수업

책 읽는 토요일



김승연
안주하
이수아A
이수아B
이유하
이준민
전서연
정선양
정푸름
최은비
허 율
홍유정

들어가기 전에

드리미학교 '주말학교' 소개

드리미학교는 천안 병천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로, 학생들이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로서의 배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서의 배움, 실천적 삶으로서의 배움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교육을 펼치는 곳입니다.

2024년 2학기, 드리미학교에서는 GVC(Global Vision Center)라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주말학교'를 열었습니다. GVC는 청주 지역에 사는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과후 수업 기관입니다. 주말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인성 교육, 미술, 악기 연주 등의 수업이 열렸으며, 총 25명의 고려인 청소년들이 신청하여 참여하였습니다. 각 수업은 드리미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안을 만들어 진행하였으며, 한국 청소년들과 고려인 청소년들의 학문적, 문화적, 정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의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고려인 소개

고려인은 한민족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으로 고향을 떠난 조선인들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그들은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잃은 그들은 또 한 번의 고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끈질기게 버티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오늘날의 고려인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룬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고려인 친구들은 그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오늘날을 살아가는 4-5세대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긴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기보다는, 그저 여느 친구들처럼 웃고 떠들며 서로를 알아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 드리미학교 김승연 학생**)

프롤로그

책 읽는 토요일을 펴내며

드리미학교가 위치한 병천은 천안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도 흔히 이주민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에도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봄에 GVC(Global Vision Center)라는 교육 기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 속한 고려인 청소년들과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만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고려인 청소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좁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려인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누군가 진심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들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청소년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미학교 2024년 2학기 수업으로 'BOOK Mission'이라는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책'을 도구 삼아 고려인 청소년들의 삶에 문을 두드려 보면 좋겠

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수업은 곧 의미 있는 고민의 장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수요일

매주 수요일 수업 시간마다 모여 자료를 찾고, 읽고, 토론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마음의 준비와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웃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웃에 대한 환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들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과 얼마나 많이 닮아있는가? 이 외에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우리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청소년들을 우리 마음에 초대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고민과 한국 청소년들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달랐지만 고민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두 그룹 모두 성장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조급해하는 내적 갈등 속에서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책 읽는 토요일

드리미학교에서 2주에 한 번씩 주말학교를 열어 독서, 인성,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수업들을 개설하였고, 참여하고자 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BOOK Mission 수업에서 준비한 독서 수업에는 8명의 고려인 청소년들이 신청하였고, 그렇게 '책 읽는 토요일'이 탄생하였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고려인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한국어와 정서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고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책을 고르고, 함께 나눌 교안을 제작하며 마음의 경계를 넓혀갔습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어려운 한국어'와 '어색한 한국 친구들'이라는 장벽을 조금씩 넘어서며 용기를 내어 다가왔고, 그렇게 마음의 벽을 낮춰갔습니다.

한국 청소년과 고려인 청소년, 두 세계가 만날 때

이들이 서로에게 의미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순간, 가능성이라는 희망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 겪는 수많은 고민의 늪을 함께 헤쳐나가며, 더 넓은 시각과 깊은 마음을 가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잠시나마 주말학교를 통해 그 과정을 지켜본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 다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있을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웃의 경계를 넓히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25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지도교사 유세리

* 추신: 책의 마지막 부분에 BOOK Mission 수업 학생들이 만든 독서 지도안을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주민 청소년이라는 세계를 만날 기회가 생기신다면 책과 교안을 매개삼아 '당신의 요일'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차례

프롤로그

01
배우는 수요일
에세이

나의 이웃 12

나의 고려인 30

나의 독서론 40

02
책 읽는 토요일
인터뷰

수아A & 은비네 64

주하 & 율이네 70

선양 & 수아B & 유정이네 80

승연 & 서연이네 86

유하 & 준민이네 94

푸름이네 100

03
당신의 요일
독서지도안 자료

빨강 머리 앤

마법의 시간 여행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담

소명에 답하다

감정호텔

아낌없이 주는 나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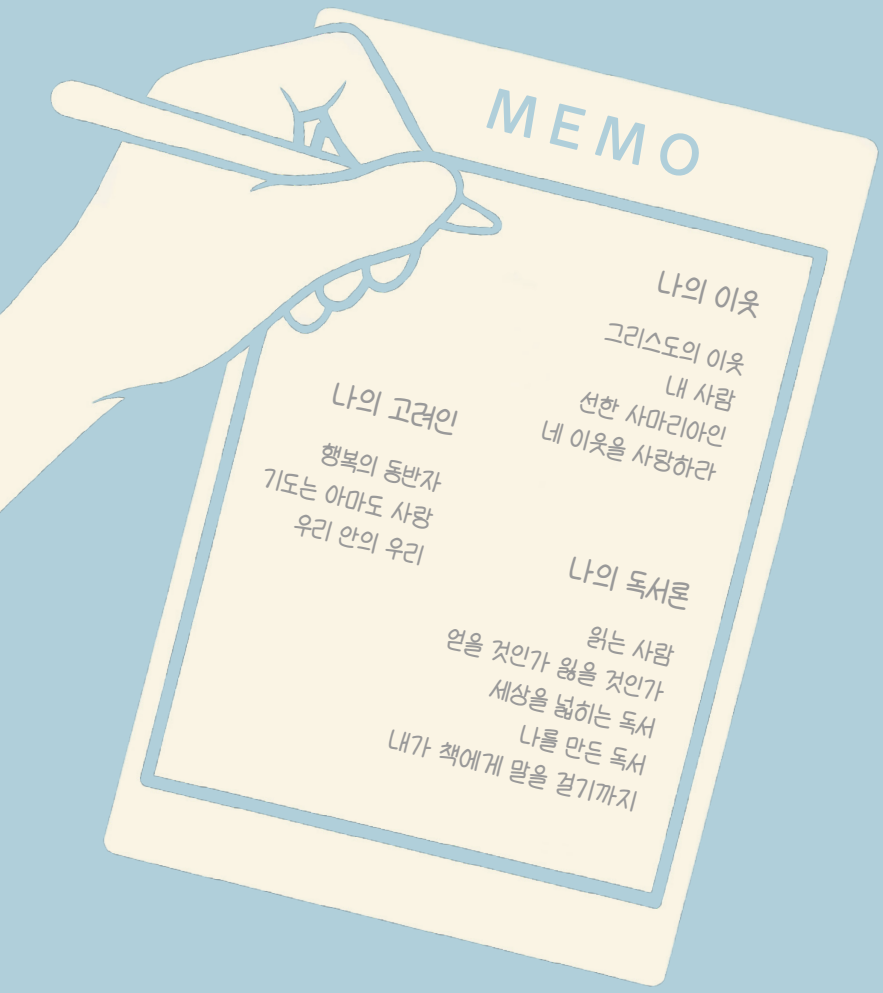
아낌없이 주는 나무 2

너는 특별하단다

긴긴밤

01
배우는 수요일

에세이


MEMO
나의 이웃
그리스도의 이웃
내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나의 고려인
행복의 동반자
기도는 아마도 사랑
우리 안의 우리
나의 독서론
읽는 사람
얻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
세상을 넓히는 독서
나를 만든 독서
내가 책에게 말을 걸기까지

나의 이웃

그리스도의 이웃

정선양

이웃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나는 이웃을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우연히 옆집으로 이사 오거나 이미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웃'이라는 존재가 된 사람들. 그것이 과연 이웃의 본질인가? 과연 우리에게 이웃은 필요한가? 우리는 왜 '이웃'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가? 이웃의 개념을 알고 있기는 한가?

사람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더 안락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좋은 사람들과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바이다. 왠지 이웃은 좋은 의미의 단어처럼 보인다. 최소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그렇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한다.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다. 길가

에 쓰러진 사람, 나에게 유익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지나쳤다. 그들이 이웃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고 도울 이유도 없어 보였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쳤다. 이러한 나에게 성경은 이웃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따끔히 경고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 주셨다. 우리는 이를 닮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나는 세속적인 기준에서만 많은 이웃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나는 우리 학교 공동체의 지체들에조차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이웃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나의 하찮은 자존심이 박살 났다. 나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없었고, 나는 그 누구의 진정한 이웃도 되어 주지 못하였다.

내가 가진 '이웃'이라는 개념에 세속적인 기준이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나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다면, '자비를 베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활자로만 적힌 이상적

인 문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인지하면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에 관심이 생길 것이다.

이제 나는 이주민 청소년들을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만나게 된다. 생각해 보면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이주민 문제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 '이웃'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이제서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준비된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시간과 노력, 감정을 들여 그들을 돕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또 나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과 초대 교회, 그리고 구한말 조선의 선교사님들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셨다. 그 사역의 출발점은 '가는 것'이었다.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그들에게 가야 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가야 한다. 우리 학교가 매 학기 가는 단기선교는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선교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곧 나는 이웃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든, 그들이 오든,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그들이 내 이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함께하려 노력할 것이다. 나의 자비와 노력은 비록 부족할지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고자 한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는다.

나의 이웃

내 사람

홍유정

이웃을 떠올리면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만 떠오른다.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눠 주던 이웃의 모습은 이미 건너편의 어머니 세대의 기억이 아닐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 이웃은 그저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며, 경계와 어색함만이 감돌 뿐이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단절로 인해 각자의 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틀 속에는 '내 사람'이라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의 나는 오직 '내 사람'만 중요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렸다. 그 외에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반기지 않았고, 때로는 싫어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명목을 핑계 삼아 그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피했다. 내 사람이 아닌 '남'에게 나를

소비하면서까지 달갑게 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내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다.

가장 순수하고 즐거웠던 14살의 나는 친구를 가리지 않고 잘 어울렸지만, 내 사람의 선은 확실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즉 내 친구들만 있었다. 선생님도, 가족도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내 사람들만 중시하고 좋아했던 나의 모습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했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 사람들에게는 상처 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남에게는 가시 박힌 말을 내뱉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좁은 관계의 물웅덩이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온 후, 처음으로 나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한정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얄팍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며 나의 삶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관계가 풍성해졌다. 점점 넓어지는 나의 마음과 세계가 마음에 들었다. 학교에 적응하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생겼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사실 나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변화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싫은 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선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등 새로운 관계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안일하게 평가했던 것이다. 수업을 통해 내가 가진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며 이러한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 내가 놓치고 흘려보낸 관계들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면서도 인격적인 대접을 바랐던 내 자신이 우스웠다. 나는 결핍된 사람이었다.

깨달음 이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대한 사랑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오며가며 건네는 인사, "밥은 먹었느냐"는 말, "괜찮냐"는 짧은 물음, "오늘도 수고했다"며 토닥이는 한마디처럼, 나의 삶을 넘어 타인의 삶을 궁금해하고 살피는 말들이 모여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믿는다. 거창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고 표정을 살피며 안부를 묻는 것, 상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것, 나 자신에게는 해주지 못하더라도 애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고 토닥이는 작은 말들이 바로 사랑이다.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이웃'은 내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또한 나의 이웃인 것이다. 지난 학기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지 못했다. 그저 나의 상처에만 집중해 그것을 급히 해결하기에 바빴다. 내 안의 결핍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내 아픔에만 치중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후에 내가 꺾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영혼을 볼 수 있었다. 꺾인 이후의 내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생각이 하나하나 선교지로 연결되었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매일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다. 비록 아직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온 힘으로 흔들어 새롭게 빚어 가신다. 그렇게 아픔을 딛고 성장한 내가 언젠가 나와 같은 아픔 속에서 울고 방황하고 있을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온전히 나의 힘으로 아픔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나에게 이겨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 용기로 다시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겼다.

나의 이웃을 다시는 잊지 않게, 늘 상기하며 살아가고 싶다. 나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선교지의 아이들을 결코 져버리고 싶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소중한 이웃들

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닿기를 바란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영혼의 위로와 치유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네 존재만으로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나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정푸름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사전에서는 이웃을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한때는 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넘어 이웃 나라인 몽골, 중국, 일본 등 크고 작은 나라들 또한 내 이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나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이웃이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사실 우리 동네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그들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타국에 친구가 없는데 그들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학교 친구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멀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고 그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이웃'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타국 땅에, 얼굴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름도, 사는 곳도, 무엇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한 가족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천일 수는 없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환대이다.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이웃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은 강도에게 당한 사람이다. 강도에게 당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무력하게 피를 흘린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런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왔다. 나에게 다가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지급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선한 마음은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그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다.

나의 이웃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준민

크리스천에게 이웃은 비단 주변인들뿐만이 아니다. 크리스천의 이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이웃에게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웃을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웃 사랑의 시작은 섬김에 있다. 우리에게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받기를 절대적으로 좋아한다. 그만큼 주는 것을 좋아하기란 어렵다. 더구나 정성을 기울여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자세이기 때문이다. 섬김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섬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섬기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만 그다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섬김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일단 섬기라. 이는 사랑이 싹트는 첫 번째 길이다.

섬김의 자세는 배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배려라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배려는 자신보다 남이 우선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통한 배려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줄기가 된다. 우리는 배려 없이 사랑을 할 수 없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물론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인다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섬기고 배려하기 힘들다. 더욱이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받기를 좋아한다. 이처럼 우리는 섬기고 배려하면 그게 다시 돌아온다고 쉽게 착각해 버리고 또 이웃에게 배려와 섬김을 기대한다. 한없이 퍼 주어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많다. 하지만 그것을 왜 멋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순종으로 행해야 한다. 순종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또 금세 배려 잊은 이기적인 자아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웃들이 많이 모여 교류하는 공동체라면 사랑하는 이유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익히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섬기고 배려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며 우리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일이 어찌 쉽겠는가? 사랑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을 알기로 한 자들은 누구나 이런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그 사랑의 실천은 삶 속에서 행실로 나타나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만 행실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행할 것들은 대단한 것들도 아니고 수많은 리스트의 목록이 아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고려인

행복의 동반자

이유하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고려인은 먼 나라에서 오랜 시간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비슷한 문화를 나누며 살아간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 우리는 이들을 단순히 이방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을 통해, 고려인과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주민들은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한국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아직 미비한 제도에 의해 그들은 하루하루 막막하게 살아가기도 한다.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그들이 행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그들 곁에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들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친구이자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웃이 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돕는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으며, 그들이 찾는 행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행하는 독서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넘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 그들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 줄 이웃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수업을 통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행복을 찾는 길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본질은 그들의 필요에 맞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심어주는 것이다. 책을 통해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걷는 여정의 시작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형태가 조금이나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고려인

기도는 아마도 사랑

전서연

내가 고려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가장 먼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며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애써온 고려인들을 섬기기 위해 나는 그들의 상황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을 넘어 실제 그들의 상황과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고려인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며, 그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말로만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공감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서의 표현이 더욱 중요하다. 그들과 더욱 굳건해진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나의 이야기도 나누어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작게나마

이끌 수 있길 바란다.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소통은 어렵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언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앞으로 내가 고려인과 소통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지나친 선입견과 편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나는 고려인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나 역시 그들을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들을 향한 나의 기도를 통해 닫혀 있던 나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진정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웃으로서의 진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직은 서로를 향한 믿음의 마음이 깊게 형성되지 않아 고려인과 교류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는 몰라도 그 시간 또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내

가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앞서 말한 공감이나 존중의 태도는 결코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나의 고려인

우리 안의 우리

이수아A

내 주변에는 다문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들을 단순히 '외국에서 온 친구' 정도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로 인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깊게 고민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들은 많이 외로웠고 따뜻한 우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중학교 때 나는 국제학교에 다녔다. 영어를 거의 알지 못한 채 그곳에 입학해 수업을 듣는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했기에 수업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봐야만 했다. 언어 장벽이 주는 무력감과 고립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 이 경험 덕분에 모르는 언어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때 내가 느꼈던 혼란과 좌절감을 떠올리며 다문화 친구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단지 몇 년간의 경험으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삶 전체를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부해야 하는 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깨달음 중에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의 곁에 서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아마도 많은 순간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길 수 있다.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가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또한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다문화라는 형태는 이제 점점 더 익숙한 일상적인 풍경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배경과 이야

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이유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모두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것이, 결국 나 자신과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의 독서론

읽는 사람

김승연

대체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줄곧 책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어느덧 출판을 꿈꾼 지 여섯 해가 되었다. 왜 나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를 엮으려 하느냐는 물음도 지겹도록 받았다. 그럴 때면 '읽는 사람'이고 싶다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고요히 책장에 놓여 있는 책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모른다. 저마다의 음성으로 서로 읽어달라고 앞다툰다. 읽는 사람은 그 소란을 듣는 사람이다. 소란을 듣는 사람은 죽기 전에 천 번을 산다. 천 가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독서를 통해 여러 생(生)을 체험했기에, 그 생들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우치다 다쓰루의 생

무례했던 나의 독서 습관에 경종을 울린 책이 있다. 10월을 맞아 북클럽의 새 도서를 선택해야 했고, 목록 중 우치다 다쓰루의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가 눈에 띄었다. 그날도 한 권만 읽으면 내 글이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로 바삐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책의 중반을 지나도, 살아남는 글을 쓰는 방법론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저자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저자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우치다 다쓰루의 뜨거운 간청을 감지했다. 내 손에 들린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야말로 저자의 간청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었다. 그간 나는 늘 책장을 넘기기만 바빴다. 완독 후에 무언가 엄청난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는 열망에 지배당했다. 그렇게 독서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 독서는 본질을 잃고 있었다. 어찌 책이 그저 활자가 나열된 종이에 불과하며, 어찌 독자가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사람일 수 있겠는가. 독서는 저자와 독자, 간청과 경청 간의 상호작용이었다. 신속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 시대에, 독서만큼 비효율적인 행위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역시 독서와 닮아 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청과 경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통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된다. 어쩌면 우리의 불통은 간청과 경청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나는 때로는 비효율이 최고의 효율이라는 정식을 믿는다.

양귀자의 생

앞서 언급한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에서 우치다 다쓰루는 책과 독자의 숙명적 만남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에게도 숙명의 책이 있다. 홀로 떠나는 여행을 앞두고 네 시간 가량의 출발을 함께할 친구를 찾아 직전에 서점을 들렀다. 나는 베스트셀러보다 스테디셀러를 선호한다. 아무래도 잠시 부풀었다 금세 가라앉는 피스타치오 쿠키 같은 만남보다는 오랜 시간 발걸음이 닿는 미지근한 우유식빵 같은 만남이 좋다. 스테디셀러 책장에서 '모순'이라는 도발적인 표지를 발견했다. 그 두 글자가 장엄했다. 직감적으로 이번 여행을 대변할 만할 선택이라고 느껴 홀린 듯이 구매했다. 양귀자의 <모순>은 시장에서 내복을 팔고 있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와 행방불명 상태로 떠돌다 가끔씩 귀가하는 아버지, 조폭의 보스가 인생의 꿈인 남동생을 가족으로 둔 이십 대 여성 안진진의 이야기이다. 어머니와 일란성 쌍둥이인 이모는 부유하지만, 지루한 삶에 지쳐 있고, 가난한 어머니는 처리해야 할 불행들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다. 안진진은 사뭇 다른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바라보며 모순투성이인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행복과 불행, 가난과 부유, 삶과 죽음… <모순>에는 대조적인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 나는 이 인물 간의 대조에 흠뻑 빠졌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삶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누구도 타인의 삶이 오답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다. 그런 일들은 대개 본인조차도 확실히 선언할 수 없다. 모순으로 가득한 이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비밀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다. 말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 해야 한다.

서덕준의 생

나의 독서론에서 시(詩)가 빠진다면, 아마 숱한 밤이 서운해할 것이다. 나의 하루 끝에는 늘 시가 있어, 시는 수면과도 같았다. 내가 시를 처음 만난 것은 누군가가 흘리고 간 두 연의 댓글이었다. 서덕준의 <멍>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시는 엄숙주의의 상징이었다. 나에게는 결코 침투할 가능성이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그 멍든 문장은 사뭇 달랐다. 삶의 최전선에 닿아 있었다. 서덕준의 시는 우월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상한 마음인 척 노력하지도 않았다. 어설픈 마음이 일상의 균열 사이로 자연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결핍이 당연했고, 그 결핍을 채우고자 시를 쓴다고 했다. 그의 고요하고 진솔한 언어가 좋았다. 오랜 시간 그를 동경했고, 그

로 인해 시를 쓸 용기를 얻었다. 나는 나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닌 치열하게 '수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최선의 행이 완성될 때까지, '시'가 될 때까지 펜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쓰던 중, 시에서 놀라운 삶의 미학을 발견했다. 바로 끊임없이 수정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시에 대한, 삶에 대한 최선의 태도라는 점이다. 단번에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이가 몇이나 될까.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를 내딛고 또 한 번 부딪히고 쓰러지고 거듭 일어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시이자, 생이었다.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에는 "나쁜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살면서 행하는 잡다한 일들을 해치우듯 지나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나는 무언가를 살피든, 누군가와 만나든, 어딘가를 걸어가든, 시를 쓰는 마음으로 순간을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내 발걸음은 서두르지만, 아직 나에게는 무한한 수정 과정이 남아 있다. 시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았고, 시상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다. 시심(心)으로 살 때, 오늘은 시가 된다.

독서는 생과 생을 연결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생을 선물하는 일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우치다 다쓰루가 간청하던 생, 양귀자가 엮어낸 모순의 생, 서덕준이 써 내려간 진솔한 생을 잠시나마 살았다. 책을 덮은 후에는 결국 무수히 겹친 나의 얼굴이 남는다. 읽는

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식이다. 천 가지 목소리를 빌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내일도 또다시 천 가지 이야기를 만날 준비를 한다.

나의 독서론

얻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

이수아B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만의 이유로 독서를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움을 얻기 위한 독서보다는 이야기의 구성과 디자인에 끌려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즐겨 읽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해 같은 책을 세 번씩 반복해서 읽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독서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성적이 향상될수록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드리미학교로 오며 다시 책을 접하게 되었고,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에서 발견한 독서의 유익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독서가 주는 유익 중 첫 번째는 가치관 형성이다. 물론, 이미 형성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자에 가까웠다. 나는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접할 기회도 적었다. 책을 통해 다

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서, 나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미 정립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다듬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고력 향상이다.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많은 경우 유튜버가 정답에 가까운 결론을 내려주거나 의견을 정리해 준다.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는 영상들도 많아 시청자의 사고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책은 다르다. 책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상은 일방적으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책은 독자가 직접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을 정리하고 필기하거나 요약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왜 그런 정보를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이는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유익이자, 현대 사회에서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인내심 향상이다. 현대인들은 점점 짧은 영상을 선호하고, 이는 사람들이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감각이 이끄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만 접하게 되고, 영상 콘텐츠의 단편적인 정보에 익숙

해지면서 긴 글이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없이 얕고 넓은 지식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에서도 나타난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창업이나 여러 직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멀티태스킹을 중요시하게 만들지만, 깊이 있는 사고나 한 가지에 몰두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긴 글을 쓰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독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의 깊이가 얕아진 결과이다. 따라서 독서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며, 인내심을 기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꾸준한 독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나는 문학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던 사람 중 하나이다. 내가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떤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공감 능력이 생겼다. 또한, 내가 가진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내가 평소에 확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책을 통해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300쪽이 넘는 책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력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다. 현대 사회는 짧고 빠른 정보 소비에 익숙해져, 깊이 있는 사고나 긴 글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있다. 영상 콘텐츠나 알고리즘에 의존한 정보 습득은 우리가 필요한 지식의 깊이를 놓치게 만들며, 여러 분야에 대한 얕은 이해만을 남긴다. 반면, 독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독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꾸준히 책을 읽고 사고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나의 독서론

세상을 넓히는 독서

안주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다. 독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내면을 성찰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또한 독서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얻으며,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책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양이 방대하지만,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거나 내 것이 아닌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위험이 있다. 세상의 겉모습을 벗겨내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독서는 바로 그러한 훈련의 첫걸음이자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첫째,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깊게 한다. 책을 읽는 과정을 통

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배경이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둘째, 독서는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키워준다. 문학 속 등장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이해하며 그들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셋째, 독서는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을 기른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한 대상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산만함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

독서는 내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나 의무감으로 책을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독서를 통해 위로와 통찰을 얻는 법을 배웠다. 특히 지난 학기 문학 수업에서 읽었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나의 삶 속의 아이러니와 현실을 직면하게 했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9월 북클럽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은 존재와 책임,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독서를 통해 나는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타인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

는 어디에서든 넘쳐난다. 우리는 그 많은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나의 것'을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휘말려 파도에 따라 고개를 이리저리 흔드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말 해야 할 일과 생각을 찾지 못하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독서는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손에 쥐고,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 콘텐츠와 짧은 형태의 미디어에 많이 노출 되어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독서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세밀한 관찰과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오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독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나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사고할 수 있으며, 세상을 넓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정보 과잉의 시대 속에서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우리는 책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의 주도권을 잃어 가는 우리 세대에게 독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능동적인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더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

어 가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의 독서론

나를 만든 독서

허율

나는 어릴 적 책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편이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행복이었고, 먼 타지 생활 중에도 한인 도서관 덕분에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나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즐겼다. 결국 그해에는 도서관 대출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꿈은 사서 선생님이었고, 도서관 관리부에 신청했던 기억도 난다.

그 당시 책을 왜 읽었는지 생각해 보면, 나는 책을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로 여기고 있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경험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은 내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책을 사랑하는 이유였다. 책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기쁨, 실패와 성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덕분에 나는 책을 읽는 훈련과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어릴 적의 독서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책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다.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모든 책에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삶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에 대한 수용도 중요하다. 여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책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책에서 나오는 삶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독서의 의미이다.

이렇듯 독서는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책을 통해 쉼과 배움을 얻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책을 통해 쉼과 배움,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독서론

내가 책에게 말을 걸기까지

최은비

나에게 독서는 항상 원수였다. 어릴 때 나는 독서를 따분하고 재미없는 활동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내가 후회된다. "책을 조금이라도 친구처럼 여겼다면 지금보다 더 똑똑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그때 나는 책이 당장 나를 똑똑하게 만들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 읽지 않았다. 하지만 책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눈앞에 일어날 일만 생각하며 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여겼고, 늘 책을 읽으라는 잔소리가 싫어서 더 멀리했던 것 같다. 어쩌면 엄마는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기에 책을 읽으라고 권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정답을 말해주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성경은 진리의 책이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학문적인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와 시대는 다르더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온 방식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만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이와 같다.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각과 환경, 논리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며 내가 책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도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책에 대해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편이다. 하지만 한 번 수용하지 못하는 내용은 저자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책의 첫인상을 잘 기억하며 읽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한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비슷하다.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물어보고 고민하는 편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상과 성격을 관찰하며 깊이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책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책을 통해 저자의 환경, 생각, 경험 등 저자의 인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것은 곧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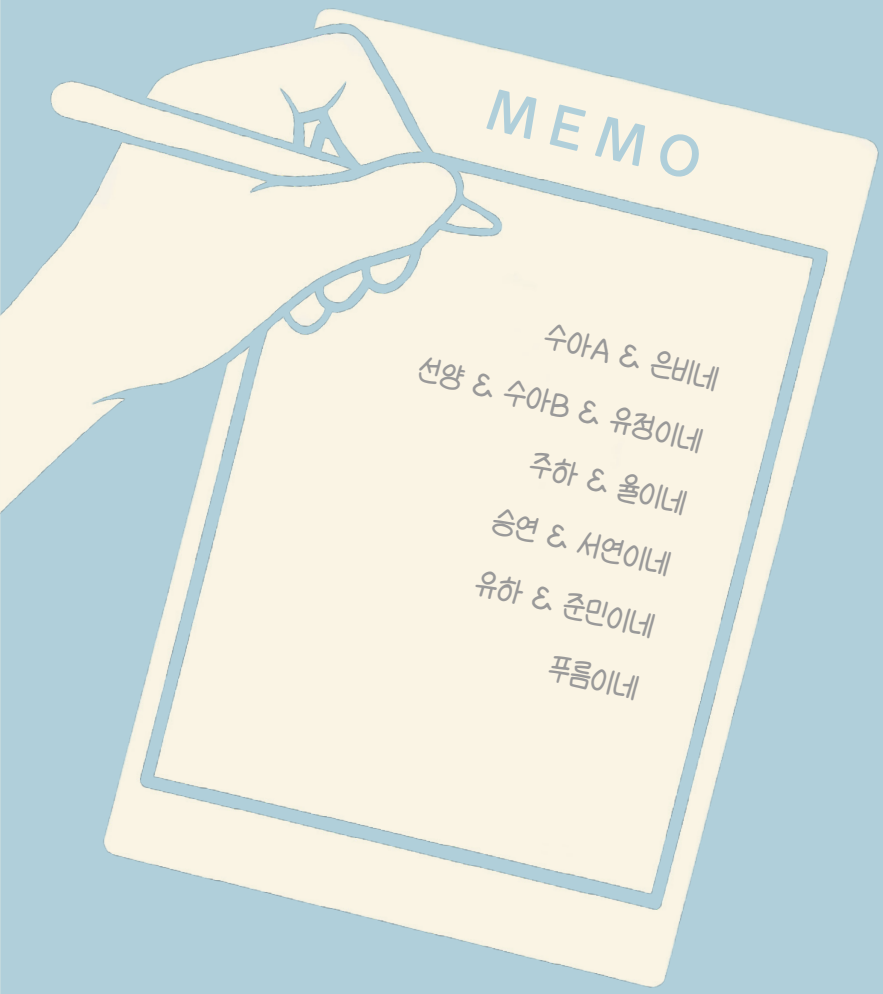
미디어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책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고,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책을 요약해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이 많아지면서 읽고 쓰고 말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영상을 보고 듣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꼭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인데, 점점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책을 읽고 실천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독서가 단순히 취미나 동기부여에서 끝나는 것도 큰 문제다.

독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책이 원수에서 짝사랑으로 바뀌기까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제야 보인다.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나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루하루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독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책 읽는 토요일

인터뷰집


MEMO
수아A & 은비네
선양 & 수아B & 유정이네
주하 & 올이네
승연 & 서연이네
유하 & 준민이네
푸름이네

수아A & 은비네

with 베로니카

독서 수업을 진행하며 베로니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최은비: 처음에는 베로니카가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어요. 한국어책에 흥미가 없어 보였고, 책을 대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소리 내어 책을 읽거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고맙게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금씩 말도 많이 하고, 질문도 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나서는 책의 내용에 대한 기대도 생겼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베로니카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주민 청소년과의 만남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최은비: 국내 이주민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의 대상으로서 항상 제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만난 이주민 친구들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인 친구도 많았고,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 밝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이주민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수아A: 이주민 친구들과 친구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 역할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정한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요?

최은비: <빨강 머리 앤>은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앤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되어준 마릴라와 매슈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앤은 걱정과 고민이 많은 아이로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며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로니카와 저는, 그리고 책 멘토로 함께하는 수아는 청소년기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베로니카와 함께 이 질문들에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앤과 마릴라, 매슈처럼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이 책을 선정했어요.

이수아: 저희는 이번 수업의 주제를 빨강 머리 앤과 함께하는 동반 성장으로 잡았어요. <빨강 머리 앤>이 함께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앤과 함께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북멘토로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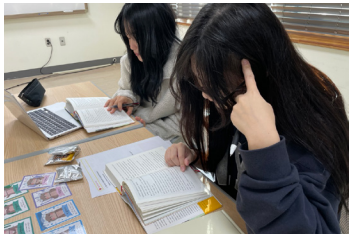
최은비: 주말학교가 끝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전해졌으면 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책을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책 읽기의 행복이 배가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베로니카에게 고마운 점이 있나요?

이수아A: 베로니카는 항상 수업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줘요. 숙제도 항상 열심히 해오고, 수업 시간에도, 수업 이후에도 꾸준히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특히 일기 쓰는 숙제를 매일매일 해왔어요. 저희 수업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잘 따라와 줬고,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베로니카의 그런 모습 덕분에 북멘토로서 수업을 한 차시 한 차시 진행할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지만, 동시에 또래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베로니카는 우리를 선생님처럼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친구처럼 웃고 떠들면서 수업에 참여해 줬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주말학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베로니카: 우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았어요. 평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특히 수업 시간에 사용한 감정 카드가 기억에 남아요. 감정 카드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배우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또한, 다양한 감정 표현을 활용해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이 인상 깊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어요.

독서 수업이 끝난 후 베로니카의 모습은 어떨까요?

베로니카: 수업이 재미있었어서 다음에 또 이런 수업이 열린다면 꼭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대학에도 가고 싶어요. 지금 제 꿈은 통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수아B & 유정 & 선양이네

with 다니엘

이주민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정선양: 아니요, 그들은 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이웃이었음을, 제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되어주어야 하며,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이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주민'이라는 존재를 이웃과 연관 지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은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열심히 달려왔기에 성장통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한반도에 다문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주민의 삶을 사회적 현상으로 마주하며 당황한 것은 아마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을 환대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독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업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역이라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정한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요?

홍유정: <감정 호텔>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두 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호텔>을 선정한 이유는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불필요해 보이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감정이 폭발해 몸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감정 조절을 못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렸어요.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힘든 과정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 작은 돌들을 건너듯이 조금씩 감정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고른 이유는, 우선 어렵지 않은 단어와 그림을 통해 독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무가 주인공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저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성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배움을 얻었고, 다른 이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일이 정말 기뻤습니다. 다니엘도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선정했어요.




이주민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수아B: 가장 큰 변화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주민이 근처에 아무리 많이 존재한다고 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기 어렵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주민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이주민 친구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인스타툰'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이처럼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만큼 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느낍니다.

홍유정: 저도 국내 이주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남이라고만 생각했죠. 하

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수업 초기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제 자신이 얼마나 한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을 단정 짓고 한정하며 제 안에 울타리를 쳐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질문을 통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깨달으며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하며 생각하는, 이 수업의 과정을 통해 타인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아직도 편견이 많고 좁은 시야를 가진 저이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조금씩 더 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친구였나요?

이수아B: 저희 다니엘은 정말 특별한 친구였어요. 저희 팀 멘토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조금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소 무겁고 신나지 못한 편이었는데, 다니엘이 재치 있는 장난들로 수업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줬어요. 다니엘의 유쾌한 장난 덕분에 저희도 함께 웃고, 자연스럽게 그 장난에 부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정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준 친구였어요!

독서 수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이수아B: 아… 너무 많죠. 저희 팀은 수시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거든요. 특히 참여하는 학생이 고정되지 않아 수업의 난이도를 수시로 조정했어요. 사실 멘탈도 많이 흔들렸지만, 저희 수업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얻는 것이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아이들이 오지 않은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덕분에 많

은 것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의 한국어 난이도를 보고 단계별로 수업을 구성하는 법을 가장 많이 배웠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좌절하기엔 아직 이르죠!




당신이 생각하는 책이 가진 힘은 무엇인가요?

정선양: 책은 있잖아요, 지식의 형상화입니다. 개념과 사상, 철학과 인생, 역사와 미래, 선과 악, 삶과 상, 철학과 인생, 역사와 미래, 선과 악, 삶과 죽음이 글로 그 모양과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책은 마치 다른 색깔의 물감을 여러 기법으로 도화지에 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검은색으로만 동양화밖에 그리지 못하는 내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고흐나 모네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에게 맞는 색과 기법을 찾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술가들에게 물감과 붓, 미술 기법이 엄청난 가능성과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삶을 그리는 미술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감과 붓, 미술 기법은 많

은 사람들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만들어왔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미술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처음 그림을 그린 시초자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주셨고, 가장 적합한 물감과 붓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읽는 책은 우리의 인생에 큰 자국과 울림을 남기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독서 수업을 통해 배운 점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황다니엘: 수업 분위기가 편안해서 책 읽는 게 더 즐거웠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해 주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책을 통해 모르는 단어들을 학습한 것도 좋았어요.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읽었던 <감정 호텔>은 짧은 책이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나는 책이었어요. 모든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또, 수업 후에 호텔을 그리는 활동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책 내용도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독서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황다니엘: 수업에서 나눔의 시간이 많았던 점이 특히 좋았어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덕분에 단어를 배우기가 훨씬 쉬웠어요. 독서 수업을 통해 단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 수업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황다니엘: 책 속 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 주기만 하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수업 후 활동으로는 '추억 나무의 열매 맺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준비한 나무 모형에 사과 모양 포스트잇을 붙이는 활동이었는데, 책 속 주인공에게 나무가 고마운 존재였던 것처럼, 저도 제게 고마운 존재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돌아보게 되어 이 활동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했어요. 저에게 나무 같은 존재는 부모님이에요. 책 속에서 주인공이 나무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율 & 주하네

with 파벨



첫 수업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허율: 저희는 파벨이라는 친구와 함께 독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처음 해보는 독서 수업이라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기준을 정했는데, 재미있고 쉬우면서도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기로 했어요. 그 결과 선택한 책이 <마법의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마법의 시간 여행>은 판타지 요소가 풍부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스토리를 활용해 다양한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어요. 책의 난이도를 낮춰 북클럽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주민 청소년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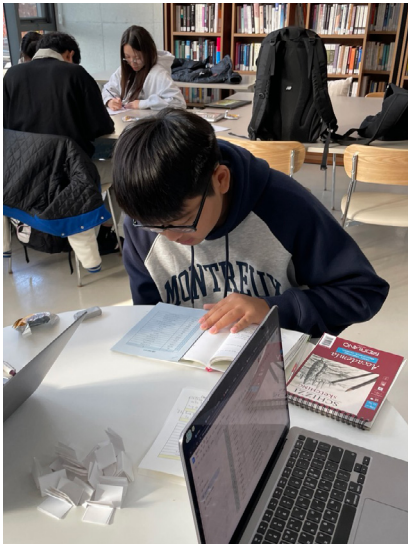
안주하: 이번 학기에 러시아어 수업과 Book Mission 수업을 같이 신청하며 이주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러시아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지만 이주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체육을 하며 언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고도 눈빛과 몸짓, 표정만으로도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파벨에게 고마웠던 점이 있나요?

허율: 파벨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 준 것이에요.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고, 책을 읽을 때도 열심히 참여하며 활동에도 성실히 임해주었어요. 특히 책을 읽을 때 인물의 목소리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진정한 성대모사 달인이었어요! 파벨은 우리 활동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숙제까지 꼼꼼히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파벨이 변화를 얻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변화를 얻은 것 같아요.

안주하: 파벨은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더듬더듬 짧은 문장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저희와 대화하려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그 태도는 저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낯선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파벨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그가 해온 숙제를 확인하면서 저는 가끔 파벨이 저보다 더 열정적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제가 진심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수업을 단순히 '선택 수업 활동'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고 있는지 제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되었죠. 파벨이 수업에 진지하게 임해준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과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번째 수업을 준비할 때는 저도 더 기대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어요.



파벨은 어떤 친구였나요?

안주하: 파벨은 다니엘과 형제인데, 둘의 우애가 엄청 좋아 보여요. 함께 있을 때 서로 편안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귀여워요. 파벨은 사교성이 좋으면서도 나지막하게 보이는 낯가림과 수줍음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정말 수줍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파벨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고 잘 웃는 친구예요. 웃음장벽이 낮은 편이 아닌데도, 그닥 웃기지 않은 상황에도 웃어주곤 해요. 물론 다 티 나긴 하지만요. 바라보는 동안 참 행복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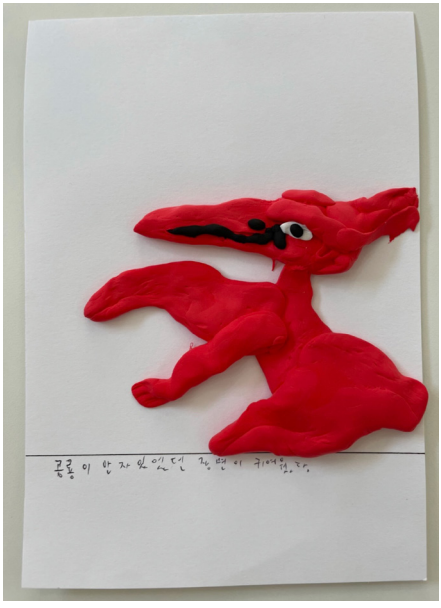


이번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파벨: 정말 재미있었어요. 판타지 요소가 특히 흥미로웠고, 스토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술술 읽혔어요. 상황과 장소 묘사가 생생해서 마치 그 장면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치만 주인공 애니가 너무 답답했어요. 미니 요약책을 만드는 활동이 제일 좋았어요.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직접 책을 만들어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책의 내용이 더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쉽고 재밌는 활동이었어요. 이제 책이 재미있어요.

이번 책의 주인공 잭과 애니의 용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파벨: 용기란 무언가를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행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용기가 절대 없어서 제가 잭과 애니였다면 나무 집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가 없으면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잭과 애니를 보면서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승연 & 서연이네

with 스베따

선정한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요?

전서연: 저희는 관계와 사랑을 주제로 독서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 청소년들에게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주민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고민하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결국 사랑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권의 책을 선정했어요.

먼저, 이주민 청소년 특성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심리적인 담을 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서서히 마음의 담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의 가치를 고민하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스베따를 돕는 입장이지만, 스베따 역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분명 가졌거든





요. 마지막으로 <소명에 답하다>를 통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번 독서수업을 통해 스베따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독서 수업을 진행하며 스베따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전서연: 스베따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입니다. 처음에는 듣기와 말하기에는 능숙했지만, 쓰기와 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휘를 찾는 시간을 갖고, 학습지를 작성하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베따에게 적합한 독서 수업 방식을 찾아갔고, 그 결과 점차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글씨를 쓸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변화를 보였어요. 스베따가 자신감을 얻고, 더 나아가 한국어 실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큰 기쁨을 느꼈어요.

독서수업을 진행하며 깨달은 점이 있나요?

김승연: 저에게는 두 가지 굳건한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매 수업마다 사고를 뒤흔들만한 배움과 깨달음을 전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어요. 두 신념의 중심에는 언제나 '제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스베따를 제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스베따가 제 기대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독서 수업이 과연 의미가 있긴 한 건지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숙한 제 태도에도 불구하고, 스베따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소감을 묻는 제 질문에 항상 같은 답을 했어요. "즐기고 있어요." 그 꾸밈없는 대답을 듣는데 제가 붙들고 있던 두 신앙이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이지 비합리적인 신념이었어요. 왜 제가 모든 어려움을 제가 해결해야만 스베따가 웃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돌이켜보니,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소한 순간들이 이미 스베따를 미소짓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쳤던 그 미소 말이에요.

스베따의 삶을 변화시키고 책임지려고 했던 제 태도는, 사실 저의 교만과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스베따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베따의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베따는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독서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 준 스베따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스베따에게 고마운 점이 있나요?

김승연: 저희 수업의 모든 공을 스베따에게 돌리고 싶어요. 어색했던 첫 시간부터 아쉬움이 남는 마지막 시간까지, 스베따는 언제나 수다쟁이였어요. 매 수업마다 특유의 당당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수업 공간을 가득 채워주었거든요. 선한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스베따는 나눔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서툰 손길로 단어 공책을 두껍게 채워갔어요. 한 마디, 한 페이지씩 정성스럽게 완성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저도 스베따의 꾸준한 노력에 자극을 받아 수업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독서 수업이 아니었다면, 스베따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열정을 알지 못했겠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열심이었던 순간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생활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스베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책이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너무 못했거든요. 러시아 책은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고, 너무 비싸서 거의 책을 못 읽었어요. 독서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조금 긴 한국 책에 도전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글쓰기나 문법도 많이 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그리고 처음 읽어보는 책인데도 공감이 됐어요. 한 권을 읽으면 또 읽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집중력이 약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독서수업 덕분에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번 주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30점이나 올랐어요!

독서 수업이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스베따: 독서수업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다니고 있는 GVC 센터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말을 놓고 나니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았고요. 첫 수업 이후로 매번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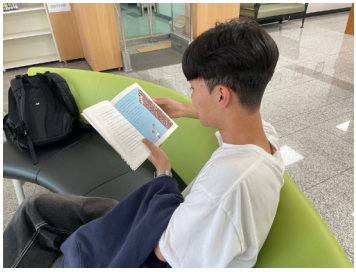
스베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어머니는 늘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게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덕분에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나무 같은 사람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번 주말학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필리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필리핀 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돈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돈이 많았다면, 필리핀 아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을 것 같아요. 돈이 없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가난의 문제를 알리고 싶어요.

준민 & 유하네

with 안톤, 올렉,
알렉산더

이주민 청소년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이준민: 첫 만남에서는 친구들과 정말 별말을 못했어요.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또래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말을 걸기가 어려웠죠. 저보다 동생이거나 형도 있어서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마저도 저희의 미숙함으로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많았어요. 같이 멘토로 이끌던 유하와 저 둘 다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첫 만남은 좀 삐걱거리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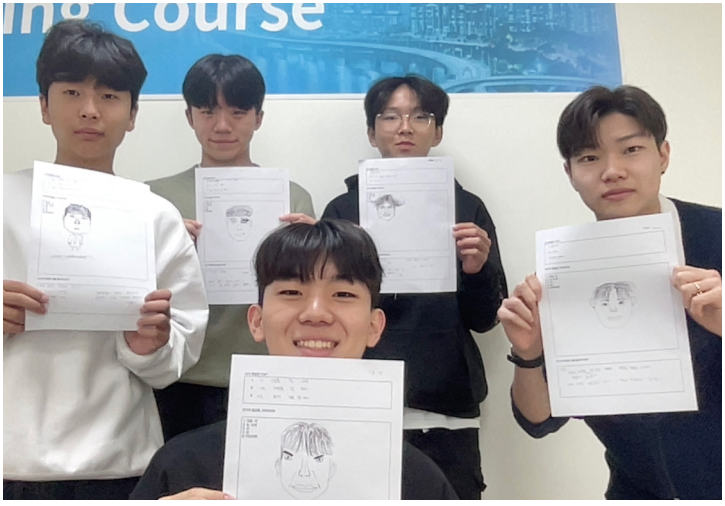


선정한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요?

이유하: 저희가 선정한 도서는 <너는 특별하단다>와 <긴긴밤>입니다. 두 책은 모두 이주민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택한 동화입니다. 독서를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서에 대한 인식을 무겁지 않게 만들어 주는 책들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는 짧고 간결한 기독교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너를 만드신 이는 너를 누구보다 특별 만드셨기에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메시지이죠. <너는 특별하단다>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긴긴밤>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는 펭귄과 코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순간의 아픔과 슬픔에 넘어지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을 좇아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주민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준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저도 처음에는 이주민 청소년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직접 만나본 뒤 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느끼는 막연함과 불안감에 크게 공감했어요. 저와 또래이거나 더 어린 친구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 처음에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시선으로만 볼 일은 아니더군요.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들을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는 이주민 청소년들은 우리와 같은 또래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아이들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와 같은 청소년 시기에서 함께 웃고 성장할 친구였거든요. 그 후로는 이주민 청소년들을 우리와 같은 또래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아이들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희와 다를 게 없어요. 나이도 같고, 함께 웃고 성장할 친구일 뿐이니까요.



알렉산더: <나는 특별하단다>를 읽으며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사람마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며 글을 이해하는 힘이 많이 성장했어요. 이 수업 덕분에,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할때 나오는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주시고 수업을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안톤: <긴긴밤>에서 우리가 힘들 때 늘 우리를 도와줄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책 속에서는 코뿔소의 가족이 죽자, 코뿔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그 친구가 죽은 후에는, 코뿔소가 펭귄을 만나게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는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요. 우리의 힘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힘이 될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올렉: 책을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활동들을 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독서 수업은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모든 활동은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고마웠고, 독서 수업의 분위기도 밝고, 간식도 있어서 편했어요. 주말 프로그램이 다시 생긴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푸름이네

with 단우

이주민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저 학교 수업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주민이 내 삶과 연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이주민은 잠시 수업에서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나이기에, 그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주민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돕고 싶으신가요?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늘어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주민 인구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이주민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교육에서 뒤처지고,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교육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단우는 어떤 친구였나요?

저는 고려인 친구가 아닌 한국인 친구와 함께 독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자녀인 단우였죠. 단우는 동생 2명을 둔 첫째였습니다. 단우를 보는데 왠지 제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역으로 바쁘신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첫째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단우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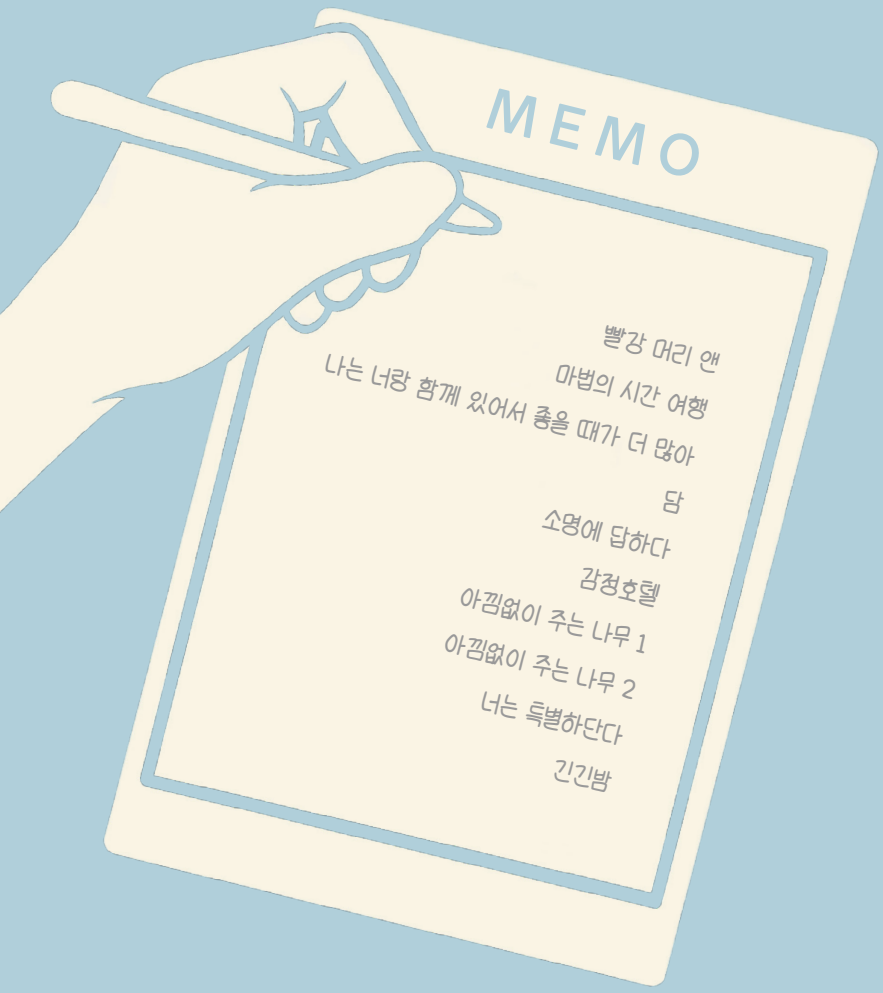
선정한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요?

제가 선택한 책은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입니다. 이 책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할 수 있는 책으로, 첫 번째 장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단우가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관계 회복과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사고 방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03
당신의 요일

독서지도안 자료집

QR 코드를 통해 북미션 웹사이트에서
독서 교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빨강 머리 앤> 독서 활동지

글. 루시 모드 몽고메리 | 옮김. 박혜원



학습지 제작자 | 이수아A, 최은비

<빨강 머리 앤> 1차시

앤과 매슈의 만남

학습목표

1. 자신의 독서 목표를 만든다.
2. 책의 내용을 예측한다.
3. Chapter1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학습한다.
4. 학습지를 통해 스토리를 이해한다.

책을 읽기 전에 문장을 이해해 봅시다.

19 페이지

… 신부의 수줍은 뺨 같은 연분홍빛 꽃들이 피었고 숱한 벌들이 웅웅 날아올랐다.

- **의성어와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자연의 소리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것입니다. ex) 멍멍, 야옹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ex) 흐물흐물, 싹싹

-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 **책을 읽으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아 써 봅시다.**

책을 읽는 중에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답하여 중심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Q 매슈는 왜 기차역으로 가게 되었나요?

Q 매슈와 마릴라는 왜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나요?

Q 만약 고아로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나요?

책을 읽은 후에 **책을 읽는 목표를 책갈피에 적어봅시다.**

책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나요? 목표를 적어주세요.

<빨강 머리 앤> 2차시

앤의 운명은?

학습목표

1. 형용사가 무엇인지 알고 책에서 찾을 수 있다.
2.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할 수 있다.
3. 등장인물의 상황을 보고 감정을 예측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문장을 이해해 봅시다.

105 페이지

그 어떤 나쁜 소식이라도 들을 각오가 되었다는 표정이었다.

-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특징 설명>	<상태 표현>	<수량 표시>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상태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ex) 빠른 자동차, 친절한 사람	ex) 행복한 순간, 슬픈 이야기	ex) 많은 책, 몇 개의 사과

-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 **책을 읽으면서 형용사를 찾아 써 봅시다.**

책을 읽는 중에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답하여 중심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Q 마릴라는 왜 앤을 보낼지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Q 마릴라가 앤을 키우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Q 내가 만약 마릴라였다면 앤을 키울 것 같나요?

책을 읽은 후에 **감정카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봅시다.**

표정 그림 ⟶

느낀 감정 ⟶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나요?

<빨강 머리 앤> 3차시

갈등 해결하기

학습목표

1. 어간과 어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특징을 알고 정리할 수 있다.
3.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물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문장을 이해해 봅시다.

138 페이지

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 **어간과 어미**

<어간>	<어미>
동사나 형용사의 주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	어간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

동사	어간	어미
말하다	말	하다
말했다	말	했다
말합니다	말	합니다

●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책을 읽는 중에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답하여 중심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Q 레이철 린드 부인과 앤과의 갈등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Q 앤과 린드부인은 갈등을 어떻게 풀었나요?

Q 앤과 같이 당신을 처음 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책을 읽은 후에 사진을 보고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 봅시다.

<앤 셜리>

<레이첼 린드 부인>

<매슈 커스버트>

<마릴라 커스버트>

<마법의 시간 여행> 독서 활동지

글. 메리 포프 오스본 | 옮김. 노은정



학습지 제작자 | 안주하, 허율

<마법의 시간 여행> 1차시

마법의 오두막집에서 일어난 일

학습목표

1 새 단어를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등장 인물의 특징을 알고 정리할 수 있다.
3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단어를 학습해 봅시다.

<1장> 숲 속에서 생긴 일

단어	뜻
시큰둥하다	흥미가 없고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다.
대꾸하다	상대방의 말에 답하거나 응수하다.
그저 그렇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나쁘지 않은 평범한 상태이다.
바짝 뒤쫓다	아주 가까이에서 빠르게 따라가다.
뉘엿뉘엿	해가 천천히 지는 모습.
나지막이	낮고 조용하게 소리를 내다.
시큰둥하다	흥미가 없고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다.
탄성	놀라거나 감탄해서 내는 소리, "우와!" 같은 소리.
무턱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아랑곳하지 않다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다.
추켜올리다	위로 들어 올리거나 칭찬하다.

<2장> 괴물

번지르르하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별로이다.
훑어보다	위아래로 빠르게 살펴보다.
비단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천.
볏	닭이나 새의 머리 위에 있는 뾰족하고 붉은 부분.

<3장> 여기가 어디지?

단어	뜻
양치류식물	고사리 같은 식물 종류.
절레절레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양, 주로 부정할 때 쓰인다.

<4장> 헨리

숨이 멎다	너무 놀라거나 감동해서 잠시 숨이 멈추다.
경계하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조심하다.
솜털	아주 부드럽고 가는 털.
영리한	똑똑하고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돌연변이	생물체가 자연적인 변화로 인해 원래와 달라진 상태.
갸우뚱거리다	고개를 기울이며 의아해하거나 생각하다.

<5장> 황금메달

허둥지둥	당황해서 서두르며 행동하다.
숨을 헐떡이다	숨을 가쁘게 쉬다, 주로 힘들 때.
핀잔을 주다	상대방을 꾸짖거나 나무라다.
최초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일.
시늉을 하다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고 흉내 내다.
헤치다	무언가를 밀거나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다.
물끄러미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다.
굽어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어슬렁 어슬렁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 모습.
툴툴거리다	자꾸 불평하며 투덜대다.
나지막한	소리가 낮고 조용한.

책을 읽는 중에 내용을 정리하며 책을 읽어 봅시다.

Q 중요한 사건을 적어봅시다.

Q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인상깊었던 장면을 상상하면서 클레이로 표현해 봅시다.

클레이로 표현한 장면을 설명해 봅시다.

<마법의 시간 여행> 2차시

잭과 애니, 그리고 공룡

학습목표

1. 책과 친밀해 지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2. 활동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새 단어를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단어를 학습해 봅시다.

<6장> 공룡의 골짜기

단어	뜻
목련	봄에 피는 큰 하얀 꽃.
귀담아 듣다	주의 깊게 잘 듣다.
투덜투덜	작은 소리로 불평하는 것.
다다르다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옹기종기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모양.
쪼그리다	몸을 작게 구부리다.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까마득히	너무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다.
굉음	아주 큰 소리.
주둥이	동물의 입.
괴상한	이상하고 특이한.
뒤뚱뒤뚱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걷는 모습.
우물우물	입속에서 음식을 삼키지 않고 계속 씹는 모습.
흉측한	무섭고 보기 싫은 것.
성큼성큼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함께 하다.
덩달아	순간적으로 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
번득거리는	순간적으로 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
중얼거리다	혼자 작은 소리로 말하다.

<7장> 준비, 차렷, 출발!

단어	뜻
한달음에	쉬지 않고 한 번에 바로 가다.
곧장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다.
골짜기	산 사이에 길게 파인 곳.
득실득실한	많은 것이 바글바글 모이다.
에워싸다	둘러싸다.
덮치다	순식간에 빠르게 달려들다.
일제히	모두가 한꺼번에 동시에 하다.

<8장> 거대한 그림자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씩 하다.
찬찬히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하다.
무턱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하다.
노릇	사람이 맡은 일이나 역할을 안 좋은 느낌으로 말하는 것.

책을 읽는 중에 **내용을 정리하며 책을 읽어 봅시다.**

Q 중요한 사건을 적어봅시다.

Q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키워드를 이용해 설명해 봅시다.**

뽑기 요약 활동

1. 스토리에 관련된 단어 또는 표현이 적힌 종이 중 5개를 뽑는다.
2. 뽑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오늘 읽었던 스토리를 설명한다.
3. 설명이 끝난 후 그 사람에게 추가 질문을 한다.
4. 새로운 키워드를 질문 당 하나씩 뽑은 뒤, 그 키워드를 이용해 답을 한다.

<마법의 시간 여행> 3차시

그리운 집으로

학습목표

1. 한국어에 대한 경계와 부담이 한국어에 대한 흥미로 옮겨질 수 있다.
2. 새 단어를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단어를 학습해 봅시다.

<9장> 짜릿한 비행

단어	뜻
예리한	보는 눈이(판단이) 날카롭고 정확하다.
하마터면	위험한 일을 간신히 넘겼을 때 쓰는 표현.
균형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
짜릿한	마음이 흥분되고 두근거리며 떨리다.
기적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특이한 일.
나부끼다	가벼운 물체가 바람을 받아서 가볍게 흔들리다.
사뿐히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발을 내딛는 모습.
속삭이다	남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더미	많은 물건이 모여 쌓인 모양.
후다닥	갑자기 빠르게 뛰는 모습.
들춰보다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뒤지다.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말하거나 알리다.
거센	매우 강하고 거칠다.
질끈	강하게 눌러서 꼭 붙이는 모습.

<10장> 그리운 집으로

단어	뜻
지저귀다	새가 울다.
소곤거리다	남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초저녁	날이 어두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물끄러미	한곳만 바라보는 모습.
영문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나 그 이유.
마법	신기한 일을 일으키는 것.
휘둥그레 하다	놀라서 크고 동그랗게 눈을 뜨다.
재촉하다	어떤 일을 빨리하도록 조르다.
꾸며내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한숨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
뿌듯한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다.
확실한	틀림없이.
맞장구를 치다	남의 말에 반응하거나 동의하다.
나란히	서로 같은 줄이나 위치에 가지런히 함께 있는 모습.

책을 읽는 중에 내용을 정리하며 책을 읽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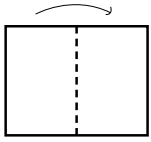
Q 중요한 사건을 적어봅시다.

Q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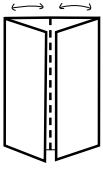
책을 읽은 후에 **책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미니책(요약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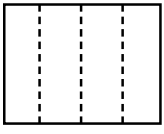
1. 책 내용 되짚어 보기
2. 전체 줄거리 짧게 요약하기
3. 미니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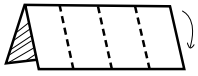
1. 종이를 가로로 펼쳐놓은 후, 왼쪽 끝을 오른쪽 끝에 맞춰 접었다가 다시 펼치세요.



2. 종이의 양쪽 끝을 한가운데 있는 중심선에 맞춰 접었다가 다시 펼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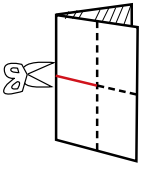
3. 종이에는 수직으로 4개의 면이 생겼을 것입니다.



4. 이번엔 종이를 가로로 2등분이 되도록 접으세요.



5. 그런 다음 종이 전체를 펼치면 8개의 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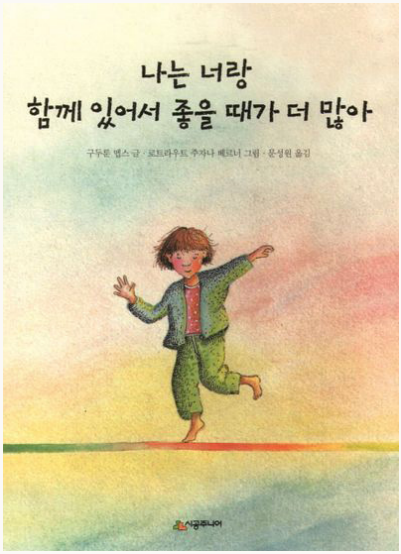


6. 종이 전체를 세로로 2등분해서 반 접은 후, 접힌 쪽에서부터 중심선을 따라 한 면만 가위로 오리세요.

4. 미니책 꾸미기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독서 활동지

글. 구드룬 멥스 | 옮김. 문성원



학습지 제작자 | 정푸름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부활절 아버지

학습목표

1. 잘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보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을 수 있다.
2. 각 인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3. 부활절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단어를 학습해 봅시다.

단어	뜻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 모습 따위가 특이해 우습다.
양모	양의 털.
잿빛	재의 빛깔과 같이 흰빛을 띤 검은빛.
능숙하게	능하고 익숙하다.
뚜렷하게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다.
분주하다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
얼뜨기	어수룩하고 얼빠져 보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복받쳐 올랐다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다.
태연하게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다.
얼빠진	정신이 없다.
둔탁하고	생김새가 거칠고 투박하다. 소리가 굵고 거칠며 깊다.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책을 읽는 중에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답해 봅시다.

Q 아버지에게 받았던 선물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Q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책을 읽는 중에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려 봅시다.

1

아버지에게 받았던 선물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2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동생과 함께

학습목표

1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와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
2 형제자매와 힘들었던 일, 고마웠던 일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3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단어를 학습해 봅시다.

단어	뜻
요양소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 기관
여태껏	'여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창백한	얼굴빛이나 살빛이 핏기가 없고 푸른 기가 돌 만큼 해쓱하다.
애원하다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여 간절히 바라다.
훼방	남을 헐뜯어 비방함. 또는 그런 비방.
얼토당토아니하다	전혀 합당하지 아니하다. 전혀 관계가 없다.
레코드판	레코드플레이어의 턴테이블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판.
가곡	시에 곡을 붙인 성악곡.
느닷없이	나타나는 모양이 아주 뜻밖이고 갑작스럽게.
앙증맞다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아주 깜찍하다.
까다롭다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행동이나 생각이 둔하고 빠르지 못하다.
전축	레코드판의 홈을 따라 바늘이 돌면서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
나무라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꼬집어 말하다.
이롭다	이익이 있다.
불쾌한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아니하다.
적막하다	고요하고 쓸쓸하다.
거추장스럽다	물건 따위가 크거나 무겁거나 하여 다루기가 거북하고 주체스럽다.

●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책을 읽는 중에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답해 봅시다.**

Q 주인공은 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요?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Q 동생에게 주인공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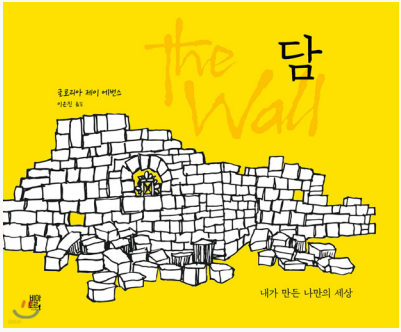
책을 읽은 후에 책을 읽는 중에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려 봅시다.**

가족의 관계표를 그려 봅시다.

동생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을 그려 봅시다.

<담> 독서 활동지

글. 글로리아 제이 에번스 | 옮김. 이은진



학습지 제작자 | 김승연, 전서연

<담>

내 마음의 담

학습목표

1.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2. 위로와 격려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배운다.
3. 새로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내고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4. 단어 노트를 작성하여 새로운 어휘를 익히고,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며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표지

책을 읽는 중에 모르는 단어와 인상 깊은 문장에 표시하면서 읽어 봅시다.

-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봅시다.

-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어 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질문에 답해 봅시다.**

Q1 담을 쌓아 보호하고 싶은 나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Q2 주인공은 담을 쌓으며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나요?

Q3 나의 마음 속에도 담이 쌓여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담은 어떤 감정의 돌로 이루어져 있나요?

Q4 담에 갇혀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어떤 생각을 했나요?

Q5 내가 사랑 받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나요?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 깨달았나요?

Q6 담을 쌓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고마운 대상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Q7 당신에게 치우기 무거운 돌이 있나요?
당신에게 지우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Q8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Q9 나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Q10 기억에 남는 문장과 그 이유

<소명에 답하다> 독서 활동지

글. 신동열



학습지 제작자 | 김승연, 전서연

<소명에 답하다> 은사 part

사랑이라는 은사

학습목표

1.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해 배우고, 사랑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2. 단어 노트를 작성하여 새로운 어휘를 익히고,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3. 칭찬 사전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책을 읽기 전에 단어 뜻을 찾아 봅시다.

은사란 무엇인가요?

책을 읽는 중에 모르는 단어와 인상 깊은 문장에 표시하면서 읽어 봅시다.

-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봅시다.

-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어 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칭찬사전을 작성해 봅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사는 공동체의 칭찬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칭찬을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칭찬의 문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 사전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칭찬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지는 것을 찾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칭찬 사전에서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 당신이 갖고 있는 은사일 것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문장에 색칠해 봅시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 도전한다.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본다.	긍정적이다.
갈등을 잘 해결한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잘 느낀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인다.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는 일을 잘 시작한다.
마음의 힘이 강하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같다.	결정을 잘 내린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잘 생각한다.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아픔을 잘 참고 견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꾸밈 없이 정직하다.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기계나 도구를 잘 사용한다.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을 잘 표현한다.	세심하게 일을 챙긴다.	재능이 많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다.	다른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차린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좋아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여러 의견에 열려 있다.
그룹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	큰 목표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참을 줄 안다.	다른 사람이 잘하지 않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동물을 사랑하고 잘 어울린다.	동정심이 많아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
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글을 잘 쓴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다.

나의 칭찬을 적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기억에 남는 문장과 이유를 적어봅시다.

1
이유

2
이유

3
이유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을 적어봅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독서 활동지 (1)

글. 셸 실버스타인



학습지 제작자 | 김승연, 전서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

학습목표

1.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대상을 떠올리고, 그 대상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2.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계획한다.
3. 단어 노트를 작성하여 새로운 어휘를 익히고,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4. 활동지를 작성한 후,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미니책을 만든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며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표지

책을 읽는 중에 모르는 단어와 인상 깊은 문장에 표시하면서 읽어 봅시다.

-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봅시다.
-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어 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아낌없이 주는 너

Q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Q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2. 아낌없이 주는 나

Q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Q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고, 그 삶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Q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나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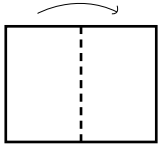
3. 아낌없이 줄 나

Q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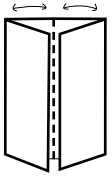
Q 지금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을까요?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의 미니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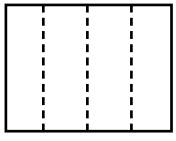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돕고 싶은 대상을 떠올려 보고,
그 대상을 돕는 이야기를 담은 나만의 미니책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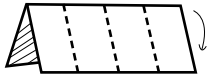
1. 종이를 가로로 펼쳐놓은 후,
왼쪽 끝을 오른쪽 끝에 맞춰
접었다가 다시 펼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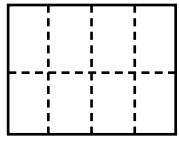
2. 종이의 양쪽 끝을 한가운데 있는
중심선에 맞춰 접었다가 다시 펼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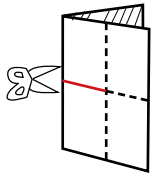
3. 종이에는 수직으로 4개의
면이 생겼을 것입니다.



4. 이번엔 종이를 가로로 2등분이
되도록 접으세요.



5. 그런 다음 종이 전체를 펼치면
8개의 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6. 종이 전체를 세로로 2등분해서
반 접은 후, 접힌 쪽에서부터
중심선을 따라 한 면만 가위로 오리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독서 활동지 (2)

글. 셸 실버스타인



학습지 제작자 | 이수아B, 정선양, 홍유정

<아낌없이 주는 나무>

추억 나무의 열매 만들기

학습목표

1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책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자신의 감사한 경험을 글로 쓸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며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표지

책을 읽는 중에 책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봅시다.

Q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Q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Q 나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Q 내가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나요?

책을 읽은 후에 **나의 나무를 그려봅시다.**



나무가 된다면 어떤 나무가 되고 싶나요?

● (나무에 대한 소개를 한국어로 적어주세요!

<감정 호텔> 독서 활동지

글. 리디아 브란코비치 | 옮김. 장미란



학습지 제작자 | 이수아B, 정선양, 홍유정

<감정 호텔>

나만의 감정호텔에 어서오세요!

학습목표

1.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2. 감정, 정서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
3. 그림책을 통해 독서와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살펴 봅시다.**

- **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봅시다.**

단어

지배인,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쉬 떠나지 못하고 , 벽이 흔들릴 정도로,
죄책감, 우울감, 수치심, 마음껏, 훌훌 털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눈코 뜰 새 없이 , 보살핌, 재촉하다, 아우성치면, 불안, 두려움, 주목받다,
버거워지면, 조르다, ~하는 법이 없다, 혼자 꾸려 가다, 어루만지다,
여기저기서 ~가, 찾아오다, 만족감, 안도감, 희망, 지루할 틈이 없다,
~하기 마련이다

- **표지를 보며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표지

책을 읽는 중에 **책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봅시다.**

●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골라 표시해 봅시다.**

1) 슬픔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작다	크다	넓다	좁다

2) 분노에게 필요한 방은 어떤 방인가요?

좁은 방	넓은 방	예쁜 방	이상한 방

3) 다음 중 분노가 변할 수 없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죄책감	우울감	수치심	즐거움

● **다음 중 정답에 O/X 표시 해봅시다.**

1) 분노가 떠나면 찾아오는 감정은 평화이다.

O	X

2) 모든 감정의 크기는 똑같다. 모든 감정은 잘 보인다.

O	X

3) 감정들은 재촉해서는 안 되며, 다들 오고 싶을 때 오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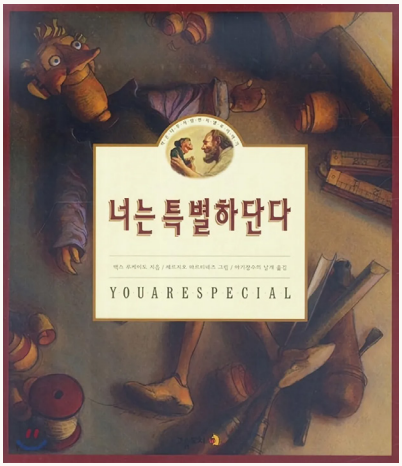
O	X

책을 읽은 후에 **나만의 감정 호텔을 그려 봅시다.**

나의 손님(감정)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너는 특별하단다> 독서 활동지

글. 맥스 루케이도



학습지 제작자 | 이유하, 이준민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는 왜 특별한걸까?

학습목표

1.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책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친구의 특별한 점을 알고 존중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며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표지

-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일까요?
-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책을 읽는 중에 모르는 단어와 인상 깊은 문장에 표시하면서 읽어 봅시다.

-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봅시다.
-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어 봅시다.

책을 읽은 후에 나의 특별함과 친구의 특별함을 발견해 봅시다.

- 내가 특별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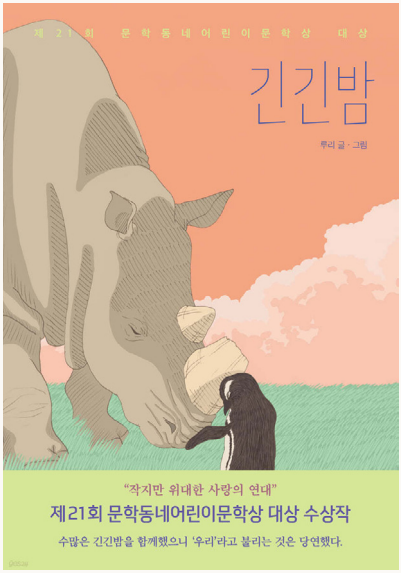
- 친구의 얼굴을 그려 봅시다.

얼굴, 귀, 눈, 눈썹, 코, 입, 머리카락 등

- 친구의 특별한 점을 적어 봅시다.

<긴긴밤> 독서 활동지

글. 루리



학습지 제작자 | 이유하, 이준민

<긴긴밤>

긴긴밤을 보내며

학습목표

1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책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문 할 수 있다.
3 그림책을 통해 독서와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며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표지

-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일까요?
-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책을 읽는 중에 다음 그림을 본후 글을 작문하고 순서를 써주세요.

그림	순서	작문
		
		

그림	순서	작문
		
		
		

책을 읽은 후에 **책과 관련된 낱말 10개를 찾아 봅시다.**
(3글자 단어는 7개, 2글자 단어는 3개 입니다.)

점	미	산	긴	긴	밤	벗	빕	정	앙
가	코	끼	리	밀	멩	흰	채	가	먼
득	탐	영	민	리	이	장	부	명	크
노	정	동	밤	유	버	녹	불	윤	비
든	핀	물	낭	칼	십	코	일	반	삽
우	콘	원	재	립	정	뿔	승	경	양
레	렵	손	며	나	가	소	연	소	나
사	일	을	논	비	뢰	횡	혜	납	용
펭	녀	책	타	타	아	량	지	평	선
귄	아	도	간	리	법	몸	보	머	난
대	자	량	소	계	바	다	마	도	양

책 읽는 토요일

1판 1쇄 펴냄 2024년 12월 23일

기획 유세리 김승연 이수아A 이유하

지은이 ‘BOOK Mission’ 수업 학생들(지도교사 : 유세리)
김승연 안주하
이수아A 이수아B
이유하 이준민
전서연 정선양
정푸름 최은비
허율 홍유정

편집 김승연 이수아A 이유하
디자인
표지 이유하
내지 이유하 최은비
일러스트 이수아B

펴낸곳 애터미 인재개발원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봉항로89 드리미학교

이 책의 본문은 ‘을유1945’ 서체를 사용했습니다.